

## 광산구, 이륜차 불법운행 야간 합동단속 소음·불법개조 등 15건 적발…행정처분

광산구는 지난달 30일 신창동 아파트 단지 주변 및 수완동 대로변을 중심으로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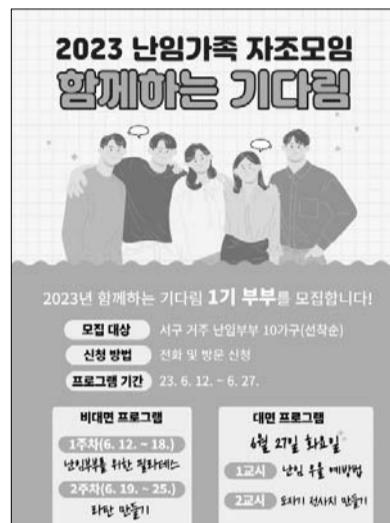
광산구, 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3개 기관 1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소음측정기 등 장비를 동원해 단속을 벌였다.

△이륜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불법구조변경 △배기소음 기준 초과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이를 통해 배기소음 기준 초과 1건, 불법등화장치 6건, 소음기 불법 개조 1건, 번호판 봉인 미부착 2건 등 총 15건의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동기 기자

## 서구, 6월부터 난임가족 지원 프로그램

사회문제로 이해·공감하는 공동체 분위기 조성



서구는 6월부터 관내 난임가족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기다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구는 난임이 여성만의 문제라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함께하는 기다림'은 상·하반기 4기수에 걸쳐 부부 소통 방법 및 우울증 예방법 등의 전문가 대면 강의 및 온라인 뱅드를 활용한 부부 필라테스 교실·라탄 만들기 등 비대면 강의로 진행된다.

특히 비대면 강의는 네이버밴드를 개설해 댓글 소통을 통한 대상자 간 주기적 교류, 정보형 게시물 및 카드 뉴스 업로드를 통한 전문 지식 전달, 기수별 프로그램 참여 인증샷 미션 진행으로 우수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선주 기자

## 북구, 여름철 폭염 대비 종합대책 추진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피해 예방 총력

북구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폭염대응체계 확립 ▲주민생활 밀착형 폭염대책 ▲폭염저감시설 운영·관리 ▲폭염 예방 홍보 등 4대 추진전략 11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신속하고 체계적인 폭염 대응을 위해 상황관리반, 건강관리지원반, 농축산신자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관계부서 협동 T/F팀을 운영하고 재난 현장 조치 행동체뉴얼도 재정비한다.

냉방시설을 갖춘 관내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등은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하며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안부확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중점 관리한다.

또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해 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애외근로자 안전관리와 농·축산 분야 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열섬 환경을 주요 도로에 살수차를 운행하고 그늘막, 쿨링포그 등 136개의 폭염 저감 시설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예경보시스템을 통해 폭염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반상회보, 공동주택 안내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피해 예방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권형안 기자

## 광주시교육청 '1학교 1법관 진로멘토링'

멘토법관 함께하는 모의재판·견학 등 진로탐색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31일 광주지방법원과 진로·직업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1학교 1법관 진로멘토링' 체결식을 진행했다.

지난달 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1학교 1법관 진로멘토링'은 지난 2011년 '교육기부(진로직업체험 등)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이래 올해로 11회째를 맞았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고, 법 관련 진로·직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멘토링 체결식에는 이정선 교육감, 광주지방법원 박봉태 법원장, 멘티학교 업무 담당자와 멘토법관이 참석했다.

양 기관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학생들을 위한 소통프로그램 소개, 멘토링 우수사례 공유, 멘토법관과 멘티학교 담당 교사 간 간담회 시간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이번 달 31일~11월 30일 총 21개교 일반고등학교 학생들과 16명의 현직 법관이 참여한다. 특히 학교 방문 강연 및 모의재판 등 실습과 함께 법원 견학 및 재판 방청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조선주 기자

# '5년 1천억 지원' 광주·전남 대학, 글로벌30 신청

## 광주·전남 일부대학 통합·대학간 교류 추진…최종 결과 촉각

5년동안 1000억원이 지원되는 '글로벌대학30 선정 사업'의 예비신청서 접수가 마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 대부분의 대학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대학은 '통합 추진' '대학간 교류 협약' 등을 제출하며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어 최종 결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가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대학30 사업' 혁신기획서 접수가 이날 오후 5시 마감됨에 따라 광주·전남 40여개 대학이 전날부터 신청서를 접수했다. 교육부는 6월 중심사를 거쳐 15개교를 예비선정한 뒤 9월~10월 10개교를 최종 발표할 방침이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은 지방대학 경

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 세계적 대학 육성을 목표로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 30개교를 선정해 2027년까지 5년 동안 각 대학에 1년에 200억원, 총 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

대학들은 선정 여부를 존폐의 문제로 보고 보안을 유지하며 A4 5쪽 분량에 '혁신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학간 '통합 추진' '교류 협약' 까지 제출하며 치열한 사전 경쟁을 펼쳤다.

조선대·광주대·광주여대는 지난 23일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대학 30 사업 추진 관련 정보교류'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학점 교류'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선대는 다음달 조선간호대학과 통합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목포대·순천대·전남도립대는 통폐합을 전제로 한 혁신 방안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의 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도 약속했다.

글로벌대학30 사업 예비선정은 혁신 비전과 과제를 핵심적으로 제시한 최대 5쪽 분량의 '혁신기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된다.

대학이 제출한 계획이 학교 안팎, 학과 등 내부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이며 결집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는지 여부 등을 토대로 '혁신성' 접수가 60점을 차지한다.

나머지 40점은 자체 성과관리 체계 등 '성과관리' 20점, '지역적 특성 반영' 20점이 부여됐다. 지역혁

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대학은 '지역적 특성'에서 10점을 우선 획득한다.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개 시도다.

광주의 한 대학총장은 "총점 70점을 넘어야 예비지원이 가능하며 혁신성 지표 접수가 30점 미만이면 탈락된다"며 "기획서가 대학의 손을 떠난 만큼 정부가 공정하게 평가해 주길 바랄 뿐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지역과 연계한 취업 중심의 혁신안이 마련될 수 밖에 없어 '인문학 고사 가속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폐과로 인해 교수·학생들의 반발, 국립대가 선정될 경우 사립대의 집단 반발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며 "교육부가 심도있게 선정하고 탈락 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도기 기자

## 농림지 동시 발생 돌발해충 순천국유림, 협업 방지



**목포해경, 마지막 의무경찰 전역 및 해단식…52년 국가적 사명 완수**

지난 52년간 서해바다의 해양 주권수호에 한 축을 담당한 목포해경 의무경찰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청사 5층 대강당에서 의무경찰 전역식 및 해단식을 개최하며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의무경찰의 마지막을 기념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경찰관의 든든한 동반자로써 우리 바다를 지키는데 함께 노력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군복무를 통한 경험으로 각자의 꿈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 '주차난 해소' 광주송정역 주차장 개장

송정역 이용객 "자가용 끌고와도 주차 편해…환영"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공영주차장. 3년여 공사를 마친 뒤 이날 정식 개장한 주차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열차 이용객들의 차량이 즐비했다.

전체 1580면 주차 공간 중 각종에 해당된 주차 면 수는 220여 면 꽂고,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1층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7면을 포함해 불과 47면 만이 남아 있었다. 2층부터 옥상까지는 200~220면이 남아있는 등 주차 환경은 폐적했다.

개장 소식을 접하고 자가용을 몰고 나온 열차 이용객들은 저마다 역으로 향하는 가장 가까운 주차면을 찾기 위해 운전대를 비틀었다.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 된 이용객들은 빠른 표정으로 짐을 쟁겨 나와 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용객들은 그간 뚱은 주차 체증이 풀리는 듯 하다며 공영주차장 개장을 크게 반겼다.

최승운(35)씨는 "주차 자리가 더무니없이 적고 임시주차장이 불편해 택시를 이용해왔다"며 "실제 이용해보니 주차 면수도 넉넉하고 하차 공간도 넓어 편하다"고 평가했다.

임영선(40·여)씨는 "하루 내내 주차해둔 요금도 크지 않아 출장 갈 때마다 자주 이용할 것 같다"며 "뚝은 주차 체증이 풀리는 기분"이라고 후련해했다.

주변에서 사설주차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공영주차장의 개장에 한숨이 들었다. 벌써부터 손님 이탈이 시작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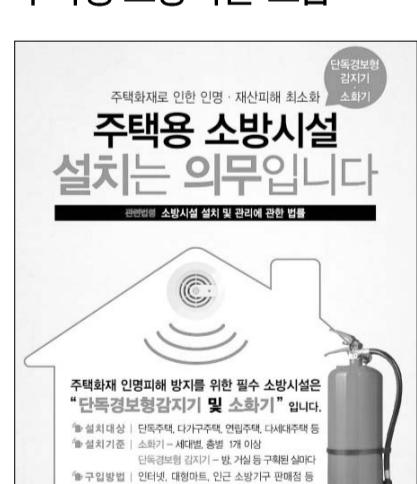
상황에 쉽사리 요금을 내리며 경쟁하기도 어려운 처지에서다. 공영주차장에서 제공하는 각종 할인 혜택 제공이 어려운 점도 사설주차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공영주차장 주변 한 사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4대에 불과했다.

공영주차장 개장 직전인 지난주에는 같은 시간 200여 대가 이용했던 것이다. 사설주차장들은 대부분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세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미지도 차량이 들어오지 않아 무용지물이다.

업주 김모(48·여)씨는 "큰 차이가 없지만 공영주차장은 KTX 이용객 30% 할인 등 공공기관이 주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며 "세들어 지어진 사설주차장은 매달 400만원씩 토지 소유주에게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어 요금을 내리기에도 쉽지 않은데다 이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동기 기자

## 광주소방, 1만531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주택 화재의 원천적 예방과 초기대응을 위해 올해 1만531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돼 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그 동안 8만 9716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했다.

올해 사업 내용은 2012년 2월 4일 이전 지어진 주택 1만5310가구에 오는 10월까지 1가구당 주택용 소방시설 1세트(소화기 1개·단독경보형감지기 2개)를 보급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시민설치 단 24명을 별도로 채용, 방문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 광주문화재야행 기간 "동구에서 숙박하고 디너 패키지 즐기자"

동구는 6월 밤거리를 수놓을 '광주문화재야행' 개최 기간 동안 (16~17일) 관내에서 숙박하는 관광객을 위한 '디너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숙박·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올해 특별히 관내 협력 숙소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야숙(夜宿)'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를 더했다.

이를 위해 관내 협력 숙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역의 맛을 느낄 수 있

는 광주식 백반과 로컬 디저트를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해 광주문화재야행과 지역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죽여 방법은 6월 15~18일 협력 숙박업소 이용객에 한해 예약 확정 후 로컬 디저트를 이용하는 안내 문자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를 중 선정된 100명은 광주문화재야행 개최 기간 동안 오후 6~10시까지 디너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다.

디너 패키지는 동구 대표 맛집인

/김도기 기자